



numbers
vol. 238

가정의 달 리포트 1 : 한국인의 결혼·가족 가치관
‘부모는 자녀를 키우며 정신적으로 성장한다’ 92%!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 ① 어린이 방과 후 놀이 실태
- ② 한국인의 독서 실태

[넘버즈 칼럼]

결혼, 하나님의 신비와 사랑이 빚어낸 첫 제도

2024. 5. 7.

목회데이터연구소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부모는 자녀를 키우며 정신적으로 성장한다’ 92%!

5월은 어린이날을 필두로 어버이날, 부부의날까지 있어 ‘가족’을 생각하고 되돌아볼 수 있는 가정의 달이다. 그동안 넘버즈에서는 결혼과 가족에 관한 여러 주제를 다뤘었는데, 그동안 다뤄보지 않은 주제를 중심으로 2회에 걸쳐 가정의 달 리포트를 진행한다.

먼저 이번 ‘한국인의 가족 가치관’ 편에서는 결혼과 가족에 관련하여 여러 정부 기관이 최근 발표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정과 관련한 변화하는 가치관과 인식을 살펴본다.

이번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미혼 여성의 절반(52%)이 결혼 의지나 계획이 없었으며, 가임기 국민 4명 중 3명(74%)이 ‘비혼 출산’에 동의했으며, 20대 청년의 42%는 결혼생활에 대한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전통적인 결혼관의 변화가 감지된 점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결혼을 통해 행복감을 성취할 수 있다’(89%), ‘부모는 자녀를 키우며 정신적으로 성장한다’(92%)에 동의해 ‘결혼과 출산을 통한 가정의 가치’를 여전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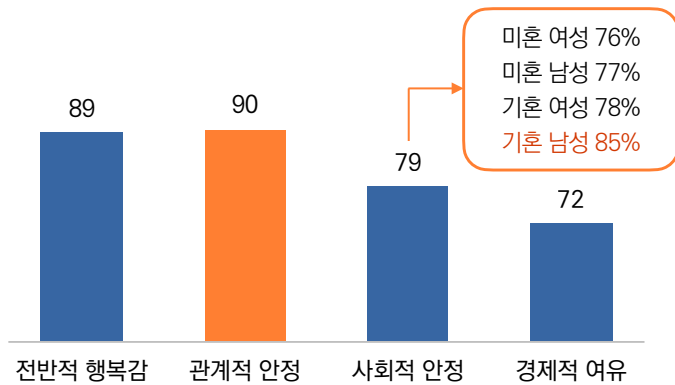
01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

결혼을 통해 성취할 수 있는 가치, 전반적 행복감 89%

- 최근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가임기 연령대(20~44세)를 대상으로 결혼 및 출산 관련 행태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제1차 국민인구행태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먼저 가임기 국민(20~44세)의 결혼 가치관을 확인할 수 있는 질문으로 '결혼을 통해 성취할 수 있는 가치' 4가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해 성취 정도를 묻은 결과, '관계적 안정'(90%)과 '전반적 행복감'(89%)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가장 높았다.
- 특히 '사회적 안정'의 경우 기혼 남성에게서 결혼을 통해 성취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결혼을 통해 성취할 수 있는 가치 (20~44세 가임기 국민, '매우+약간 성취할 수 있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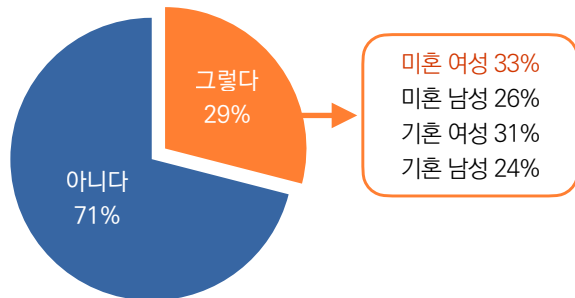
※출처 : 인구보건복지협회, '제1차 국민인구행태 조사', 2024.03. (전국 20~44세 2,000명, 전화면접조사, 2023.10.23.~11.13.)
*4점 척도

가임기 미혼 여성 3명 중 1명, '결혼은 구시대적 제도'!

- 이번에는 결혼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진술문 '결혼은 구시대적 제도이다'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동의율을 묻은 결과 가임기 인구 29%가 동의했다.
- 결혼 유무/성별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여성', '미혼'일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는데, 미혼 여성의 경우 33%가 동의해 3명 중 1명꼴로 결혼제도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림] 결혼에 대한 인식* (20~44세 가임기 국민)

결혼은 구시대적 제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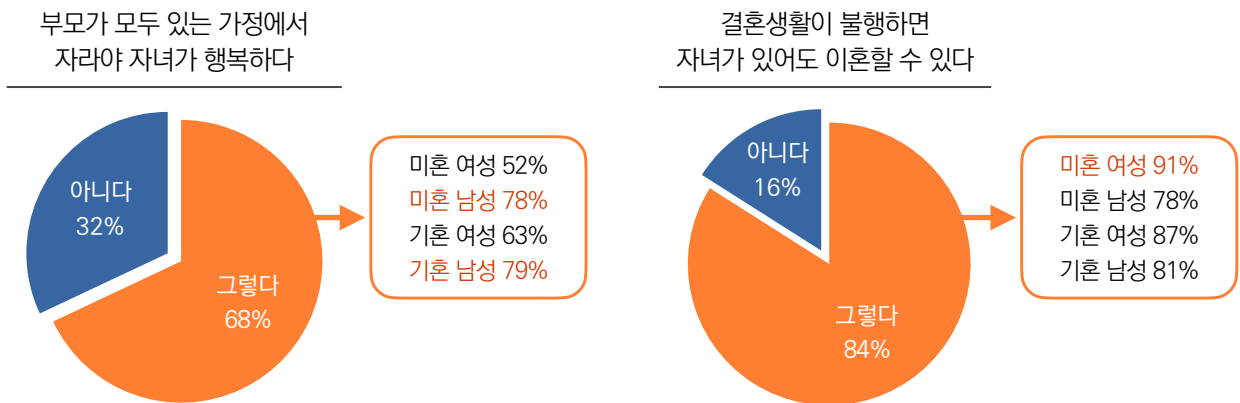


※출처 : 인구보건복지협회, '제1차 국민인구행태 조사', 2024.03. (전국 20~44세 2,000명, 전화면접조사, 2023.10.23.~11.13.)
*4점 척도

가임기 국민, ‘부모 모두 있는 가정의 자녀가 행복’하다

- 이번에는 자녀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진술문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동의율을 묻은 결과, 전체 응답자 3명 중 2명 이상(68%)이 ‘부모가 모두 있는 가정에서 자라야 자녀가 행복하다’는데 동의했고, 응답자 대부분 (84%)은 ‘결혼생활이 불행하면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고 응답해 이혼에 있어서는 자녀 요인이 중요하지 않다는 개방적인 견해가 강했다.
- ‘부모가 모두 있는 가정에서 자라야 자녀가 행복하다’에 대한 동의율은 전반적으로 여성보다 남성이 더 높았고, 미혼 여성은 절반가량(52%)만 동의해 4그룹 중 가장 낮았다.
- 반면 ‘결혼생활이 불행하면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의 경우 여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미혼 여성의 경우 대다수(91%)가 동의해 전통적 결혼관에서 가장 크게 벗어나 있었다.

[그림] 자녀에 대한 인식* (20~44세 가임기 국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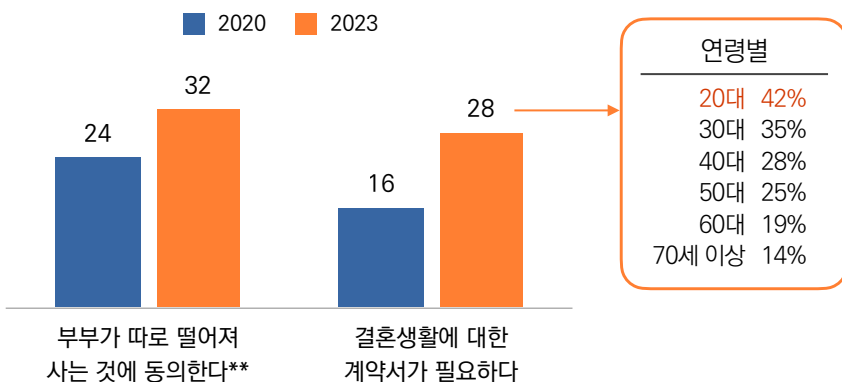


※출처 : 인구보건복지협회, ‘제1차 국민인구행태 조사’, 2024.03. (전국 20~44세 2,000명, 전화면접조사, 2023.10.23.~11.13.)
*4점 척도

20대 청년의 42%, ‘결혼생활에 대한 계약서 필요해!’

- 이번에는 가족 가치관에 대해 살펴보자. 여성가족부의 ‘2023 가족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부/결혼생활 인식에 대한 동의율은 2023년 기준 ‘부부가 따로 떨어져 사는 것에 대해 동의함’이 32%, ‘결혼생활에 대한 계약서가 필요함’ 28%로 나타났다. 이는 3년 전 조사 대비 각각 8%p 상승한 수치이다.
- ‘결혼생활에 대한 계약서가 필요하다’의 경우 연령별로 보면 20대에서 무려 42%가 응답해 타 연령대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동의율을 나타냈다.

[그림] 결혼생활에 관한 가치관 (일반 국민, ‘매우+대체로 동의’ 비율*, %)



※출처 : 여성가족부, ‘2023 가족실태조사’, 2024.04.17. (전국 1만 2천 가구의 만 12세 이상 가구원, 면접조사, 한국갤럽조사연구소, 2023.06.01.~07.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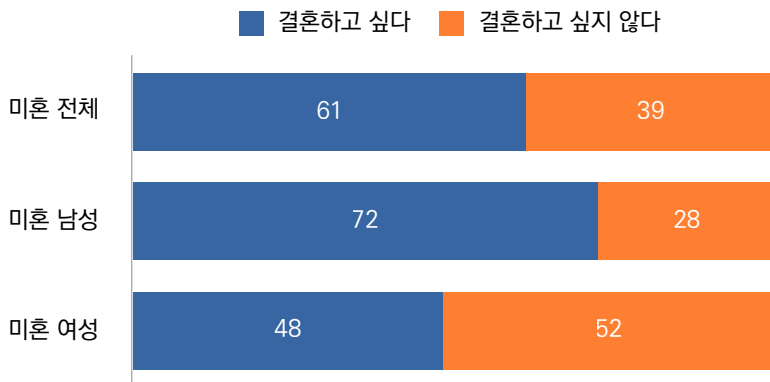
*5점 척도

**직장 등으로 주말부부가 된 경우 제외

미혼 여성, '결혼하고 싶지 않다' 52%!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최근 25~49세의 미혼 남녀 대상으로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를 공개했는데, 그중 결혼 의향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다. 결혼하고 싶다는 응답은 61%로 10명 중 6명꼴이었으며, 결혼 계획이 없거나 미정인 경우가 39%였다.
- 결혼 의향은 성별로 큰 차이가 났는데, 결혼 계획이 없거나 미정인 비율은 여성이 52%로 남성(28%)보다 크게 높았다.

[그림] 결혼 의향 인식 (25~49세 미혼 국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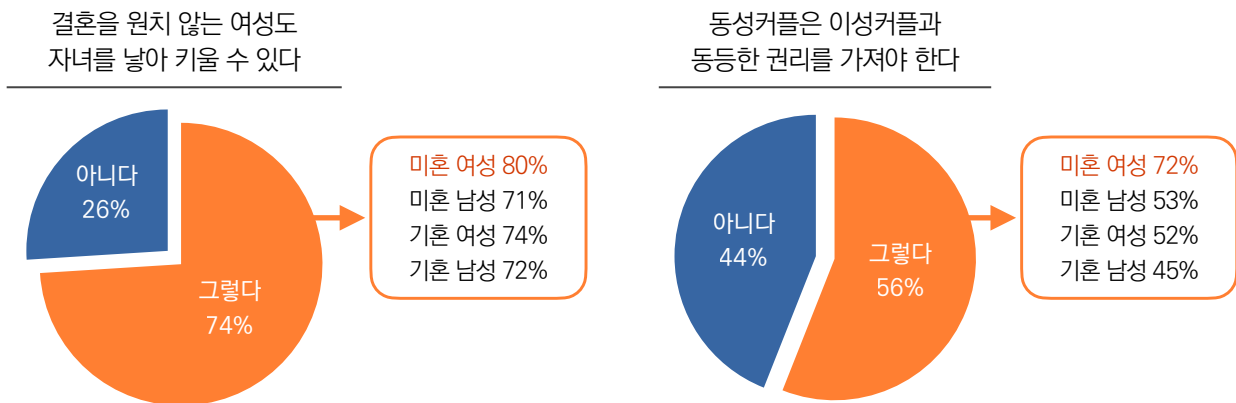
※출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2024.05.02. (전국 만 25~49세 남녀 2,011명, 모바일 조사, 2024.03.29.~04.03.)

Note) 결혼하고 싶다 : '지금도 아니지만 언젠가는 하고 싶다', '지금 하고 싶다', '결혼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비율의 합계
결혼하고 싶지 않다 : '나중에도 하고 싶지 않다', '생각해 본 적이 없다/잘 모르겠다' 비율의 합계

미혼 여성의 80%, 비혼 출산 동의!

- 다양한 가족 형태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비혼 출산'과 '동성커플' 등에 관한 20~44세(가임기) 국민의 견해를 물었다. 응답자의 74%는 '결혼을 원치 않는 여성도 자녀를 낳아 키울 수 있다'에 동의했고, 절반 이상인 56%는 '동성커플은 이성커플과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 전반적으로 보면 '비혼 출산'에 대한 동의율이 모든 집단에서 70%대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 점과 '동성커플에 대한 수용도'가 미혼 여성(72%)에서만 비교적 높게 나타난 점이 주목된다.

[그림] 가족 형태에 대한 인식* (20~44세 가임기 국민)



※출처 : 인구보건복지협회, '제1차 국민인구행태 조사', 2024.03. (전국 20~44세 2,000명, 전화면접조사, 2023.10.23.~11.13.)
*4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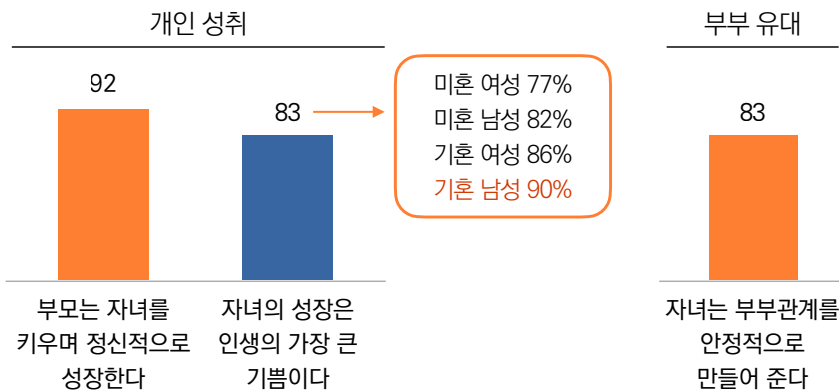
02

[자녀에 대한 가치관]

‘부모는 자녀를 키우며 정신적으로 성장한다’ 92%!

- 이번에는 자녀에 관한 인식을 알아본다. 개인 성취 측면에서 ‘부모는 자녀를 키우며 정신적으로 성장하고’(92%), ‘자녀의 성장은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다’(83%)에 대해 20~44세(가임기) 국민 대부분이 동의했고, ‘자녀는 부부관계를 안정적으로 만들어 준다’는 인식 역시 83%가 동의해 자녀가 ‘개인 성장’과 ‘부부 유대’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자녀에 대한 긍정적 가치 인식 (20~44세 가임기 국민, ‘매우+대체로 동의’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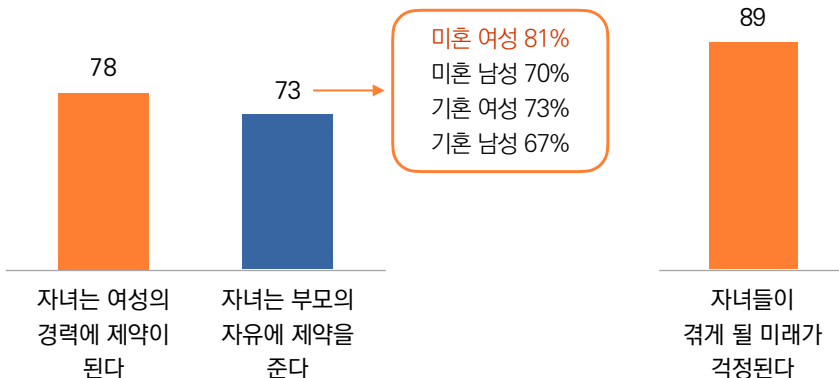


※출처 : 인구보건복지협회, ‘제1차 국민인구행태 조사’, 2024.03. (전국 20~44세 2,000명, 전화면접조사, 2023.10.23.~11.13.)
*4점 척도

미혼 여성 81%, ‘자녀는 부모의 자유에 제약을 준다’!

- 이번에는 자녀에 대한 부정적 가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진술문을 제시한 후 이에 대한 동의율을 물었다. ‘자녀는 부모의 자유/여성의 경력에 제약을 준다’에 70%대의 동의율을 보였고, ‘자녀들이 겪게 될 미래가 걱정된다’에는 대다수(89%)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 결혼 유무/성별 특성으로 살펴보면 미혼 여성의 경우 ‘자녀는 부모의 자유에 제약을 준다’에 대한 동의율이 81%로 타 집단 대비 상대적으로 높아 자녀를 자신의 자유와 경력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림] 자녀에 대한 부정적 가치 인식 (20~44세 가임기 국민, ‘매우+대체로 동의’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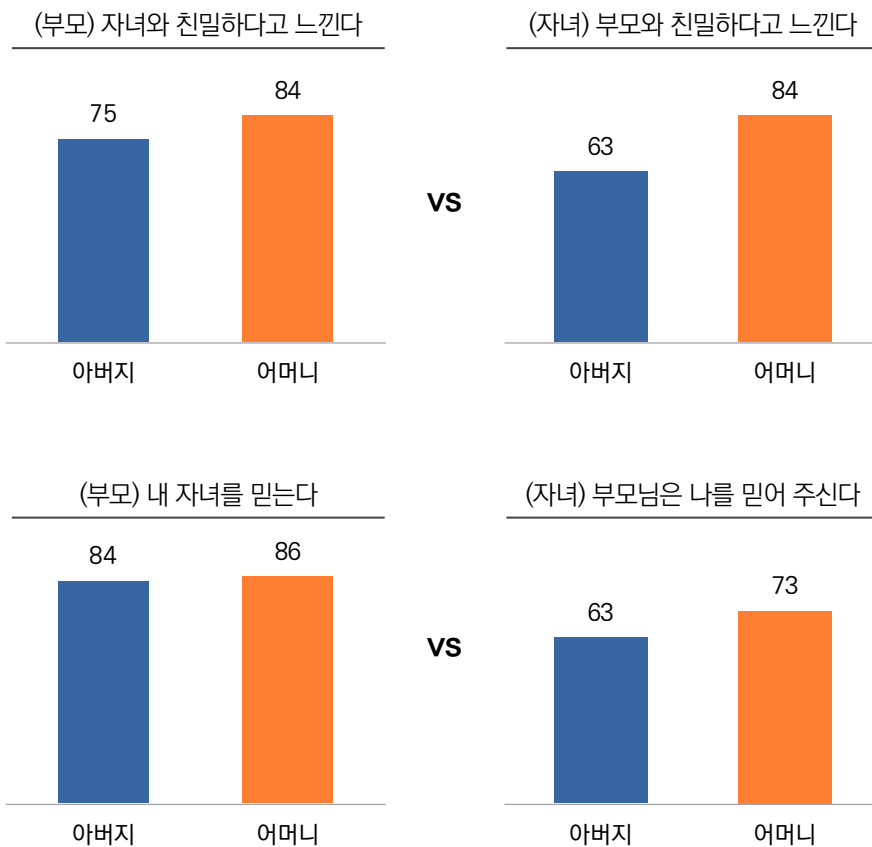


※출처 : 인구보건복지협회, ‘제1차 국민인구행태 조사’, 2024.03. (전국 20~44세 2,000명, 전화면접조사, 2023.10.23.~11.13.)
*4점 척도

아버지와 자녀, 서로에게 느끼는 친밀감/신뢰감 큰 격차!

- 부모와 청소년 자녀가 서로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인식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부모-자녀의 긍정적 관계 요소인 '친밀감', '신뢰감'에 관한 동일한 질문을 부모와 자녀에게 모두 물었다.
- 자녀의 입장에서는 어머니(84%)를 아버지(63%)보다 더 친밀하다고 느끼며, 어머니(73%)가 아버지(63%)보다 더 자신을 믿어준다고 느끼고 있었다.
- 부모의 경우 모든 관계 요소에서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자녀와의 관계를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주목할 만한 점은 아버지와 자녀가 서로에 대해 느끼는 '친밀감', '신뢰감' 간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난 점이다. 아버지는 자녀와 친밀하고 자신이 자녀를 믿고 있다 생각하지만 자녀의 인식은 그 정도에 미치지 못했다.

[그림] 자녀와 부모의 긍정적 관계 인식* (부모 vs 자녀, '매우+대체로 그렇다' 비율**, %)



※출처 : 여성가족부, '2023 가족실태조사', 2024.04.17. (전국 1만 2천 가구의 만 12세 이상 가구원, 면접조사, 한국갤럽조사연구소, 2023.06.01.~07.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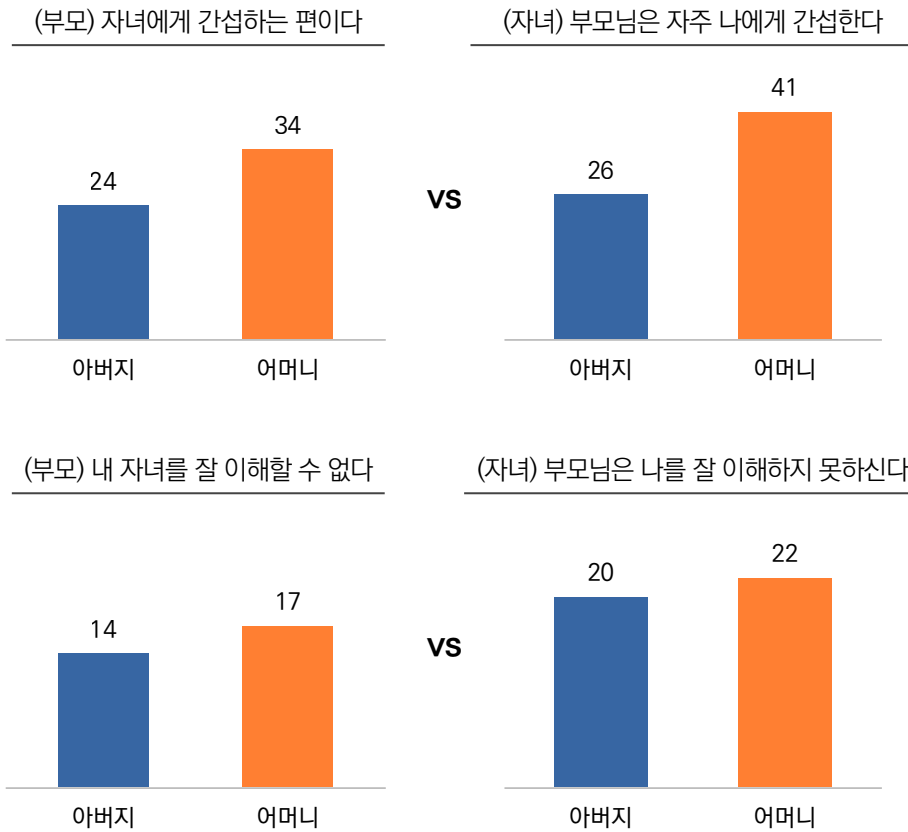
*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와 청소년 대상 질문

**5점 척도

자녀, 부모가 생각하는 것보다 자신이 부모로부터 간섭받는다고 생각!

- 이번에는 부모-자녀의 부정적 관계 요소인 '간섭', '이해 못함'에 관한 인식을 부모와 자녀에게 각각 물었다. 부모의 경우 부정적 자녀 관계 인식은 전반적으로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높았는데, '간섭'과 '이해 못함'의 경우 부모가 생각하는 것보다 자녀가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즉 자녀는 부모가 생각하는 것보다 자신이 더 부모로부터 간섭받고, 이해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 앞서 긍정적 측면 모든 면에서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높았는데, 부정적인 면에서도 어머니가 더 높아 자녀에 관한 모든 측면에서 어머니의 관여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자녀와 부모의 부정적 관계 인식* (부모 vs 자녀, '매우+대체로 그렇다' 비율**, %)



※출처 : 여성가족부, '2023 가족실태조사', 2024.04.17. (전국 1만 2천 가구의 만 12세 이상 가구원, 면접조사, 한국갤럽조사연구소, 2023.06.01.~07.31.)

*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와 청소년 대상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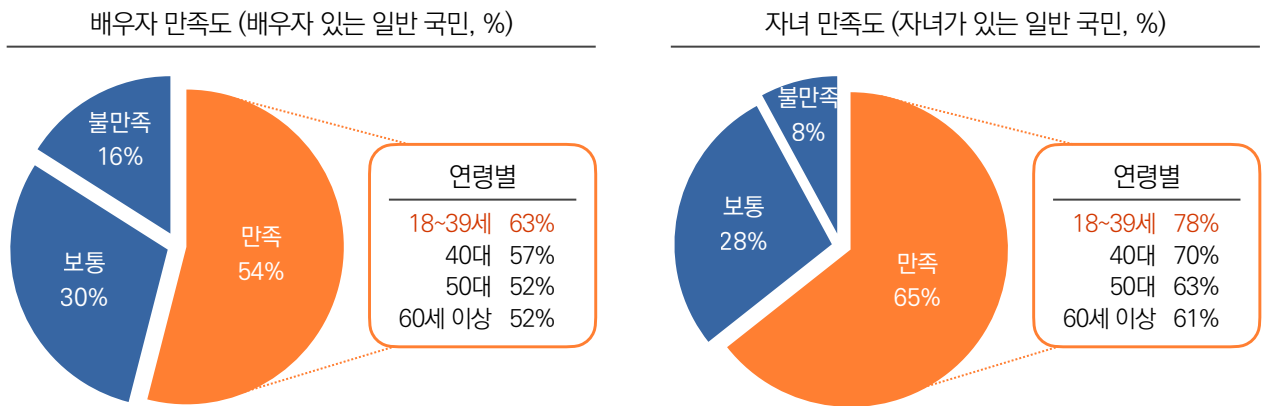
**5점 척도

03

[가족 관계 만족도] 나이 들수록 자녀와 배우자 만족도 떨어져

- 가족 관계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가족 관계 만족도’를 살펴본다. 먼저 배우자 관계 만족도를 물은 결과, ‘만족’ 54%, ‘보통’ 30%, ‘불만족’ 16%였는데, 연령대가 낮을수록 배우자 관계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 자녀 관계 만족도는 ‘만족한다’ 65%로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보다 높은 편이었고, 이 역시 연령대가 낮을수록 자녀와의 관계에 만족한다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나이가 들수록 자녀와 배우자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었다.

[그림] 가족 관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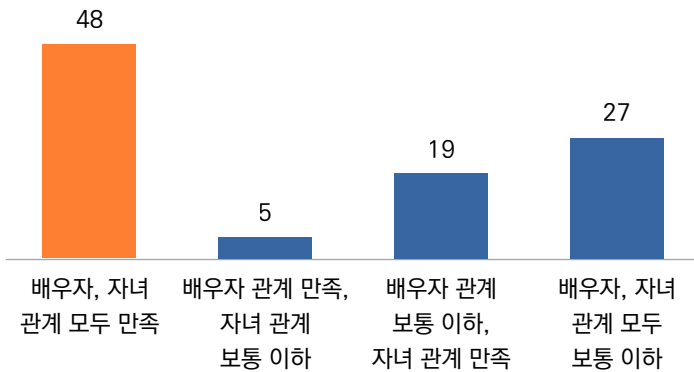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2023 가족인식조사, 가족관계 만족도', 2023.08.15.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3.06.23.~06.26.) *5점 척도

배우자, 자녀 모두 만족하는 우리 국민, 48%!

-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에 각각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를 묻고, 그 결과를 조합하여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배우자, 자녀 관계 모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절반가량(48%)인 반면 ‘배우자, 자녀 관계 모두 보통 이하’인 경우는 27%로 유자녀 기혼자 2명 중 1명은 배우자, 자녀 관계 모두 만족하고, 4명 중 1명은 배우자, 자녀 관계 모두 불만족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배우자, 자녀 관계 만족도*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일반 국민, %)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2023 가족인식조사, 가족관계 만족도', 2023.08.15.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3.06.23.~06.26.) *5점 척도

오늘날 한국은 급속한 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경험하면서 가족 구조와 결혼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그동안 어떤 세대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어서 전통을 중시하는 한국 사회이 직면한 위협과 혼란이 되고 있다. 그래서인지 최근 ‘인구보건복지협회’, ‘여성가족부’,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등 가족, 출산과 양육에 관한 정부기관의 조사결과가 가정의달을 앞두고 연달아 발표되었는데 이를 살펴보면 변화하고 있는 결혼과 가족에 대한 한국인의 가치관을 실감할 수 있다.

먼저 가장 우려할 만한 결과는, ‘결혼에 대한 거부감’이다. 25~49세 미혼 국민 대상으로 묻은 ‘결혼 의향’에 대해 39%가 결혼 의향이 없거나 미정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미혼 여성의 ‘결혼 계획이 없거나 미정’인 비율은 52%로 절반을 차지했으며 미혼 남성(28%)보다 크게 높았다. 이는 경제적 부담, 개인의 자유와 경력 개발에 대한 우선순위 때문으로 보인다. 20~44세 가임기 국민 대상의 조사에서 ‘자녀는 부모의 자유에 제약을 준다’에 73%가 동의한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결혼은 구시대적인 제도이다’가 29%, ‘결혼 생활에 관한 계약서가 필요하다’가 28%의 동의를 얻어, 적지 않은 국민들이 결혼제도의 당위성을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하지만 한편으로 희망적인 결과도 있었는데, ‘결혼과 출산을 통한 가정의 가치’는 여전히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가임기 국민 대상으로 ‘결혼을 통해 성취할 수 있는 가치’를 묻은 결과 ‘관계적 안정’이 90%, ‘전반적 행복감’도 89%의 동의를 얻었다. 응답자 대다수가 결혼을 통한 정서적 안정을 인정한 셈이다. 또한 ‘부모는 자녀를 키우며 정신적으로 성장한다’가 92%, ‘자녀는 부부관계를 안정적으로 만들어 준다’가 83%의 동의율을 얻어 자녀의 존재가 개인의 성장과 부부 유대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을 보여주었다. 비록 결혼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관이 약화되고 있지만, 결혼이 제공하는 정서적, 심리적 안정감과 행복감은 여전히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가족과 결혼의 가치관 변화를 한국 교회는 어떻게 바라보고 사역에 적용해야 할까? 먼저 결혼과 가정의 가치를 강조해야 한다. 최근 넘버즈플¹⁾ 결과를 보면 최근 증가하고 있는 비혼주의에 반해 목회자들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며 당연한 일이다’는 의견을 대부분(79%) 지지했다. 교회는 설교와 교육을 통해 결혼과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세대가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변화 속에서도 결혼과 가정이 개인의 삶과 신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려줘야 한다.

또한 변화하는 세대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개인주의, 평등주의 성향은 가족의 형태와 가치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 중 자녀에 대한 인식에서는 ‘결혼생활이 불행하면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가 대부분(84%)의 동의를 얻었으며, ‘자녀는 부모의 자유에 제약을 준다’도 10명 중 7명(73%)이 동의해, 개인의 자유가 결혼제도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이해하여 건강한 가정은 부모 자녀 간 존중과 자유로운 소통 안에서 더 굳건하게 형성될 수 있음을 알고 포용적이고 관련성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의 가족과 결혼 가치관의 변화는 한국 교회에 새로운 도전이다. 교회는 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건강한 가정 형성에 기여하고 나아가 현대 사회 속에서 교회의 역할과 영향력을 제고할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1)제 80차 넘버즈플 결과 (https://stibee.com/api/v1.0/emails/share/G1sbweekCuNu5HIG2gl9_RyYUxRZAbA)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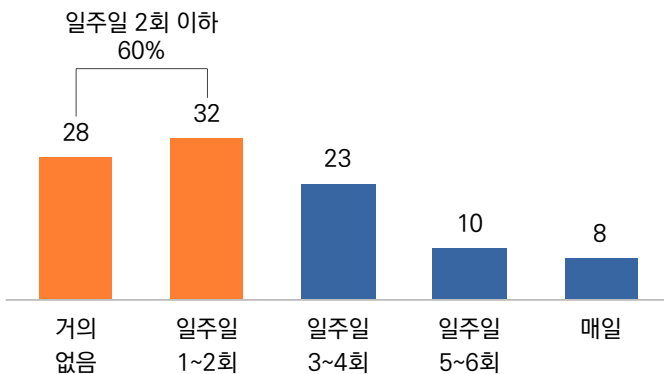
1. 어린이 방과 후 놀이 실태
2. 한국인의 독서 실태



[어린이 방과 후 놀이 실태] 어린이 10명 중 3명, 주1회도 친구들과 놀지 못해!

- 한국방정환재단이 발표한 ‘2021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에 따르면 한국 어린이와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OECD 22개국 중 최하위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어린이들의 행복과 관련이 있는 ‘어린이의 삶과 또래놀이 실태’ 조사 결과(전국 초등학교 2,450명)를 이번 어린이날에 앞서 지난 5월 2일 발표했는데 주요 결과를 살펴본다.
- 어린이들의 방과 후 또래놀이 빈도와 시간을 알아보니, 일주일에 ‘1~2일 정도’(32%)가 가장 많았고, ‘거의 없음’도 28%에 달했다. 10명 중 3명의 어린이가 사교육 등의 이유로 친구들과 놀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림] 방과 후 친구들과 노는 빈도 (초4~6학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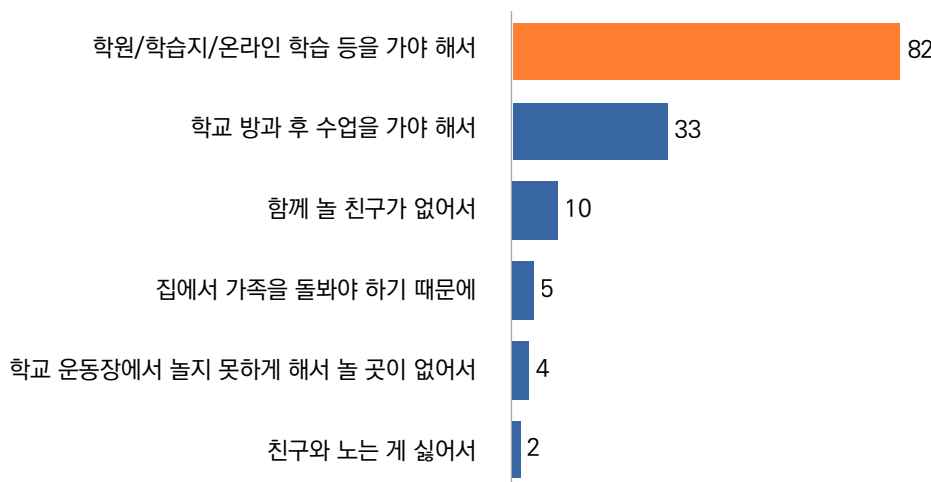
※출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보도자료, ‘2024년 어린이의 삶과 또래놀이 실태조사’, 2024.05.02.(전국 초등학교 4~6학년 2,450명, 온라인 조사, 2024.04.23.~04.30.)

*KBS, 어린이날 100주년...“어린이 행복지수 OECD 꼴찌” 2022.05.04.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5456113>)

또래놀이를 할 수 없는 이유 ‘사교육’!

- 학교 수업 후 친구와 직접 만나서 놀 수 없는 이유를 물었더니 ‘학원/학습지/온라인 학습 등을 가야 해서’(82%)라고 응답한 어린이가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학교 방과후 수업을 가야 해서’가 33%로, 또래놀이를 할 수 없는 이유는 ‘사교육’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림] 방과 후 친구들과 놀 수 없는 이유 (초4~6학년, 3개까지 중복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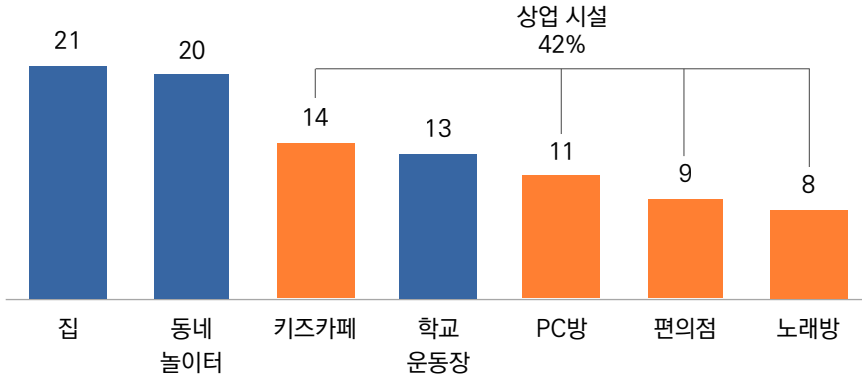


※출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보도자료, ‘2024년 어린이의 삶과 또래놀이 실태조사’, 2024.05.02.(전국 초등학교 4~6학년 2,450명, 온라인 조사, 2024.04.23.~04.30.)

친구들과 놀고 싶은 곳, 상업 시설이 42% 차지

- 어린이들이 원하는 또래놀이 장소로는 '집'(21%), '동네 놀이터'(20%), '키즈카페'(14%) 순으로 나타났다.
- 종류별로 보면 상업 시설(키즈카페, PC방, 편의점, 노래방)이 모두 42%로, 개방된 놀이 공간(놀이터, 운동장: 33%) 보다 많았다.

[그림] 희망하는 또래놀이 장소 (초4~6학년, 상위 7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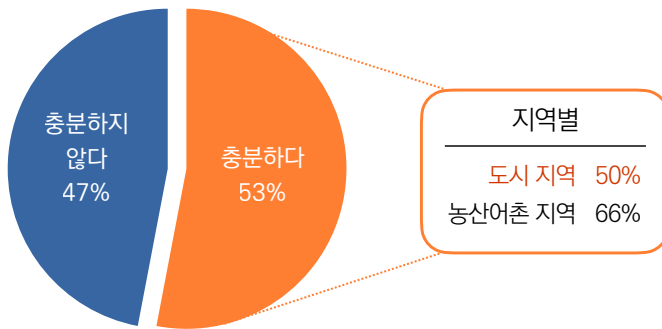


※출처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보도자료, '2024년 어린이의 삶과 또래놀이 실태조사', 2024.05.02.(전국 초등학교 4~6학년 2,450명, 온라인 조사, 2024.04.23.~04.30.)

도시 교사 절반만이 '아이들의 또래 활동 시간 충분'하다고 생각!

- 이러한 어린이들의 놀이 문화에 대해 교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학교에서 학생들이 또래와 어울려 활동할 시간이 충분한가?'에 대해 53%가 '충분하다'고 응답했으며, 47%는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 학생들의 또래 활동 시간이 충분하다는 인식은 농산어촌 지역 교사(66%)보다 도시 지역의 교사(50%)가 더 적다고 응답해, 도시 지역 어린이들이 상대적으로 충분한 또래 활동 시간을 갖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었다.

[그림] 학생들의 또래 활동시간 인식* (전국 초등교사, %)



※출처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보도자료, '2024년 어린이의 삶과 또래놀이 실태조사', 2024.05.02.(전국 초등교사 761명, 온라인 조사, 2024.04.23.~04.30.)
*4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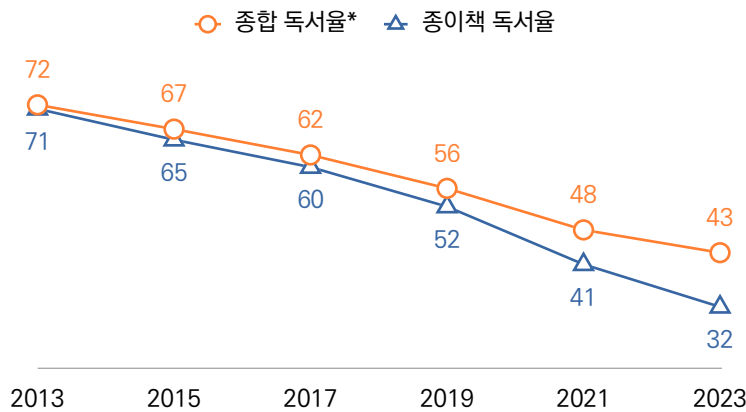


[한국인의 독서 실태]

성인 3명 중 2명, 1년에 종이책 1권도 안 읽어!

- 매년 4월 23일은 유네스코 총회에서 제정한 '세계 책의 날'이다. 때마침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3년 국민 독서실태'를 발표했는데 그 결과를 살펴본다.
- 지난 10년간의 한국인의 독서율 추이를 살펴보면 '연간 종합 독서율(종이책+전자책+오디오북)'은 성인 기준 2013년 72%에서 지속해서 감소하여 2021년 48%로 절반 아래로 급감했고, 2023년은 43%까지 떨어졌다. 종이책 기준으로 보면 2023년 32%로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1명만이 1년에 종이책 1권 이상을 읽고 나머지 2명은 1권도 안 읽은 셈이다.

[그림] 연간 독서율 추이 (만 19세 이상 성인,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3년 연간 종합독서율 학생 95.8%, 성인 43.0%'(2023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결과, 2024.4.18. (만 19세 이상 성인 5,000명 면접/방문 자기기입식 조사, 2023.10.04.~11.10.)

*연간 종합 독서율 : 지난 1년간 일반도서(교과서, 학습참고서, 수험서, 잡지, 만화 제외)를 1권 이상 읽거나 들은(종이책, 전자책, 오디오북 포함) 사람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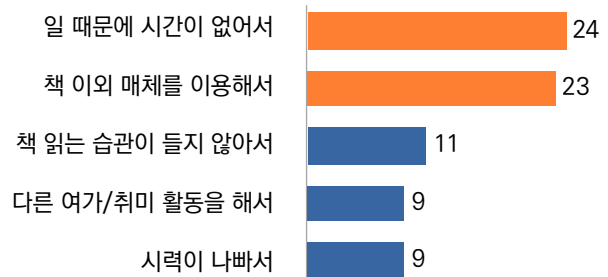
성인의 평균 독서 시간, 휴일에도 30분이 채 안돼!

- 성인의 하루 평균 독서시간(종이책+전자책+오디오북)은 평일 19분, 휴일 25분으로 휴일에도 30분이 채 되지 않았으며 평일과 휴일 간 큰 차이가 없었다. 그렇다면 독서를 방해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24%)와 '책 이외의 매체를 이용해서'(23%)를 가장 많이 꼽았고, 그다음으로 '책 읽는 습관이 들지 않아서', '다른 여가/취미 활동'을 해서, '시력' 순의 이유를 들었다.

[그림] 하루 평균 독서 시간 (성인)



[그림] 독서 방해 요인 (성인, 상위 5위,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3년 연간 종합독서율 학생 95.8%, 성인 43.0%'(2023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결과, 2024.4.18. (만 19세 이상 성인 5,000명 면접/방문 자기기입식 조사, 2023.10.04.~11.10.)

“결혼, 하나님의 신비와 사랑이 빚어낸 첫 제도”

-창세기 2장 18~25절-

신원하 원장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KICE)

목회데이터연구소 연구자문위원장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올해는 우리 사회가 부부의 날을 제정한 후 열여덟번째 맞이하는 부부의 날입니다. 우리 국민은 어린이날, 어버이날은 익숙하게 알고 있지만 아직도 부부의 날이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계시지요? 네. 우리나라는 2007년에 부부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했고 계속 지켜오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에 부부의 날을 왜 추가했을까요? 예, 그만큼 가정에서 부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통상 가정은 부부와 자녀 등으로 구성되지만, 그러나 그 출발은 부부입니다. 부부가 가정의 시작이고 근간이라는 것이지요. 가정이 행복하려면 무엇보다 부부가 행복해야 합니다. 부부 관계가 친밀하고 긴밀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가 가정의 달에 부부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부부의 날 날짜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 5월 21일입니다. 왜 이 날짜를 택하여 지정했을까요? 부부란 남편과 아내 두 사람(2)이 하나(1)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부란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이 개념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매우 비슷하지요? 사실 이 부부의 날 제정은 약 20년 전 경남 창원에서 목회하던 권재도 목사 부부로부터 비롯된 셈입니다. 1995년에 권 목사 부부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부부가 행복하고 건강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면서, 자신의 교회에서부터 부부의 날을 만들어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부의 날을 지키자고 캠페인을 계속 전개했습니다. 이 운동은 점점 호응을 얻어 2001년에는 국회에 입법을 청원했고, 그리고 마침내 2007년에는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습니다.

올해 부부의 날을 앞두고 ‘창세기 2장 18~25절’ 말씀으로 결혼제도의 기원 및 결혼의 의미에 대해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평균 결혼 연령이 30대를 이미 넘었고 또 결혼하는 청년들의 수도 이전에 비하면 매우 줄어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교회는 결혼과 가정에 대해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듣고 함께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은 성도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결혼은 하나님이 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뒤에 만드신 최초의 제도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은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 줍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2절이 말하듯이 하나님은 아담이 잠든 사이에 여자를 만드셨고, 그를 아담에게 이 끌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신 후 그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므로 돕는 배필과 함께 사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잠든 사이 아담의 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아담은 그녀를 보자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라!”(23절)라고 탄성을 발하며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아담은 그녀를 아내로 맞고 그녀와 결혼하며 살기 시작한 것이지요. 창세기의 이 기사는 하나님이 친히 결혼제도를 만드셨음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그래서 기독교회는 결혼제도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안식일제도와 함께 제정하신 창조의 제도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이하 생략)

*칼럼 전문은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koreanchristianethics.com/%EC%A0%80%EC%9E%A5%EC%86%8C/1616>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582호\(2024년 4월 4주\)](#)

-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경제 전망, 금융투자소득세 등

[전국지표조사\(주요 4개 조사기관\) 리포트 제121호\(2024년 5월 1주\)](#)

- 국정운영 평가, 정당 지지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찬반 등

사회 일반

[늘어난 취업자 93%가 여성... 男전업주부 첫 20만명 돌파](#)

국민일보_2024.4.24.

["국가 존립이 달렸다"...'20년 뒤 한국' 폭탄 전망](#)

한국경제_2024.5.6.

[미혼 40% "결혼? 글썄"...열에 아홉은 "저출산정책 효과 없어"](#)

연합뉴스_2024.5.2.

["1억 주면 아이 낳을까요?" 묻자 10명 중 6명 "그럴 듯"](#)

조선비즈_2024.5.1.

["통장에 11억 있으신지"... 억소리 나는 노후생활비](#)

국민일보_2024.4.23.

[카톡 다음은 인스타...자주 쓰는 앱 네이버·유튜브 추월](#)

한겨레_2024.4.23.

["스마트폰 가장 비싼 나라는 한국...2029년까지 1위 전망"](#)

연합뉴스_2024.4.22.

[한국 언론자유지수 세계 62위...작년보다 15계단 하락](#)

연합뉴스_2024.5.3.

[서울대생에 대한 인식... "이기적" "안전 지향"](#)

조선일보_2024.4.23.

['OECD 1위' 노인 빈곤율, 부동산 연금화 땀 14~16%P 낮아져](#)

중앙일보_2024.4.24.

아동 · 청소년

[엔데믹에 구김살 펴진 청소년...삶 만족도·긍정 인식 커졌다](#)

연합뉴스_2024.5.1.

[학원·학습지에 치여서...어린이 38% "하교 후 안 놀아요"](#)

연합뉴스_2024.5.3.

[초등학생 평균 키, 10년 전보다 男 4.3cm·女 2.8cm 커졌다](#)

연합뉴스_2024.5.2.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경제 · 기업

[우리나라 취업자 중 대졸 이상 학력자 '절반 처음 넘었다'](#)

연합뉴스_2024.4.24.

[경총 "작년 늘어난 취업자 93%가 여성...단시간근로자 사상최다"](#)

연합뉴스_2024.4.23.

[산재도 고령화...사망자 중 60세 이상 비율, 절반 넘어서](#)

연합뉴스_2024.5.5.

[우리 기업이 꼽은 3대 핵심 리스크는 기후·성장·인구](#)

경향신문_2024.4.28.

["고연봉보단 워라밸" 달라진 근로자들](#)

중앙일보_2024.4.24.

[중소기업 직원 셋 중 한 명만 2030...20년 전과 달라진 이유는](#)

중앙일보_2024.4.22.

국제 · 환경

[흔들리는 미리더십...갤럽 "전세계에서 지지 41%·非지지 36%"](#)

연합뉴스_2024.4.24.

[세계기상기구, 아시아 온난화 경고 "해수면 3배 빨리 뜨거워졌다"](#)

중앙일보_2024.4.23.

["2차대전 직전 같다"... 149國 중 102國이 군비 증강](#)

조선일보_2024.5.3.

["이미 중국판인데"...전세계 발각 뒤집어 놓은 中로봇의 '파격'](#)

한국경제_2024.5.1.

건강

[韓 노인 4명 중 1명은 '건강 위험'... "예방·관리에 국가적 노력 필요"](#)

동아일보_2024.4.24.

["복통으로 병원갔는데 이상 없다면... 우울-불안-분노 등 감정이 원인"](#)

동아일보_2024.4.24.

기독교 · 종교

["세계 기독교의 미래는 오순절이 될 것"](#)

더미션(국민일보)_2024.4.25.

[獨 개신교회 성도 인식 조사](#)

CTS아카이브_2024.5.3.

후원

후원 교회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경동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주 다일교회, 광주무돌교회, 광주벚엘교회, 꿈마을엘림교회, 꿈의교회, 남서울 은혜교회, 노량진교회, 내동교회, 내일교회, 다운교회, 당진동일교회, 더세움교회, 덕신제일교회, 대구칠곡교회, 대구평강교회, 대덕교회, 대전대흥침례교회, 대전선창교회, 대전은평교회, 대신교회, 도원동교회, 동부광성교회, 동춘교회, 동행한빛교회, 둔산성광교회, 라이트하우스교회, 마산성산교회, 만나교회, 명성제일교회, 문호교회, 미디어이터교회, 밀양남부교회, 범어교회, 빛과소금교회, 빛소금교회, 브니엘감리교회, 사랑감리교회, 산서울교회, 산성교회, 삼덕교회, 삼천포교회, 상도중앙교회, 상암교회, 서대문교회, 서영교회, 서울동성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교회, 서울서문교회, 서울은천교회, 서울중앙교회(종로), 서울중앙교회(영등포), 서울홍성교회, 서현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내교회, 송학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순복음대구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용산교회, 신일교회, 새에덴교회, 새중앙교회, 세광교회, 아름다운교회, 아현장로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성제일장로교회, 안양감리교회, 에덴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영락교회, 예은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류교회, 올리브교회, 우정교회, 울림교회, 원동교회, 은광장로교회, 은평교회, 이룸교회, 이리신광교회, 일산광림교회, 잠실교회, 제주연동서부교회, 조양중앙교회, 주안장로교회, 중동교회, 지구촌교회, 지구촌교회(목동), 진주삼일교회, 진주성결교회, 충신교회, 창동염광교회, 창일교회, 토평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남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소망교회, 한신교회(분당) 할렐루야교회, 해전교회, 혜성감리교회, 화전중앙교회, 희성교회 (가나다 순)

후원 기관

기독교대한감리회 삼남연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아대책, 마을학연구소, A방과후교회학교, (사)교회갱신협의회, (사)아시아미션, 서대문ESF,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사)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한목회, (재)한빛누리, 한일연합선교회, CBMC광주지식포럼, CCC사역연구소, GoodTV (가나다 순)

후원 기업

(주)가인지캠퍼스, (주)그랑블루, 메가리서치, (주)소프트자이온, 스페이스허브, (주)시스코프, (주)참든건강과학, (주)참물류, (주)하츠/(주)벽산 하은커넥터(주) (가나다 순)

후원 명단 안내

후원자 명단(개인)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후원 방법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 하나은행 203-910046-18604
(목회데이터연구소)

3

외국에서페이팔을 통해
후원해주실 수 있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협력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지앤컴리서치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원장 | 자문위원장(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김기혁, 민선영, 유영민, 김찬솔, 한미경

MOU 기관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 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아미션, 크리스찬타임스,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 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KICE), 한일연합선교회

해외 : 미국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캄보디아기독교연구원

Tel. 02-322-0726

E-mail. mhdata@mhdata.or.kr

Addr. [06250]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201호

Copyright © 2019 목회데이터연구소. All Rights Reserved.